

##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언제나 그렇듯 시작은 어려운 법이죠? 지금 이 글을 시작하려는 저처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음,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고졸이 없는 요즘이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몇몇 자격증을 보유했기에 취업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몇 번의 직장을 옮기면서도 많은 급여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서 쉽게 취업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서 조금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직하면 취업이 잘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해야 하는 나이라고 채용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여러 생각들로 그 당시 직장에 안주하며 지내던 어느 날,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의 직장이 있는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대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내가 살던 곳 보다는 넓은 동네니까 여긴 일자리도 많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대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천천히 알아가면서 일자리도 구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오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취직이 되려나?,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신랑만 혼자 벌어서 우리 먹고 살 수 있을까?,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하지? 아이가 생기면 취업은 더 못 하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 뭐 먹고살지?’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는 어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가 이미 성장하여 취직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결혼은 좀 더 미루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먼저 번다는 친구들이 더 많았고, 다들 확실한 위치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인거 같아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친구하나 없는 타지로 와있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고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시국까지 겹치니까 집에만 있던 저는 더 침울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전배재대ICT융합세일센터입니다]

대화 할 사람이 없던 저는 이 문자가 제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여기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단상담 이라는 3일간의 상담수업을 듣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이었다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 텐데 무슨 용기였을까요? 저의

응답에 바로 응해주셨고, 저는 3일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화상으로 강의를 들었지만 처음으로 해보는 화상강의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가끔 제 이름을 불러 주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물어주시기도 하셔서 조금씩 활기가 차올랐고, 캐드(2D,3D)마스터 과정인 직업훈련 3개월도 신청했습니다. 캐드(2D,3D)마스터 과정 듣는 교육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신청하여 미리 강의 장소도 가볼 정도로 신랑과 첫 데이트 날처럼 두근거리며 개강을 손꼽아 기대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모르던 다른 분야의 수업을 듣고 기술을 익히니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업이 끝나고 돌아와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할 때마다 ‘이번엔 되겠지 하는 기대보다는 면접은 볼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취업이고 뭐고 강의나 들으면서 그냥 놀아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을수록 칭찬을 받기도 하고 간간히 다른 훈련생들과 대화도 하면서 자신감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캐드 자격증에 이정도 스펙이면 많은 급여가 아니라도 취업은 잘되겠지?’ 라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았고, 면접 제의를 받았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면접을 갔고, 그곳에서 경력도 많고 나이대도 괜찮고 같이 일하면 좋을 거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이는 있으세요?, 계획 중이신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곳에선 날 뽑지 않겠구나!’, ‘취업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 회사 아니도 나를 원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캐드(2D,3D)마스터과정에 잘 참여하고 다른 스펙을 익히자’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도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보낸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면접 가기 전 주문처럼 ‘나를 원하는 곳은 있다, 다만 이곳이 아닐 수도 있으니 실망하지 말자’ 라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편하고 당당하며 즐거움까지 있던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던 제 마음은 ‘이곳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무조건 연락이 올 거야 분명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혼자서 답답해하던 나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찾아온 집단상담의 인연으로 알게 된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캐드(2D,3D)마스터과정]’ 으로 수업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고,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신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처럼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가 준비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집단상담’ 이나 ‘직업훈련’ 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잘 배워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으면 100% 취업에 성공한다고 자신 있게 권유해 드립니다.